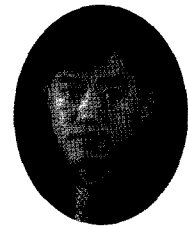


▲ 덕진공원 ▲ 전주체련공원

전주시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심포지엄

전주시와 문화시민운동 전주시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나, 우리 한걸음 더」라는 주제로 전주의 화장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글이 석 규 (한화협 과장)

행사안내

일시 : 2001년 12월 21일(금) 14:00~17:00

장소 : 전주시청강당

주관 : 전주시,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전주시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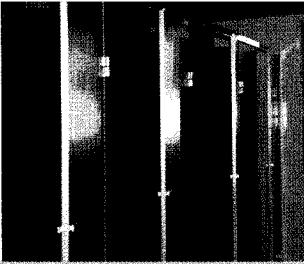
개회식

전주시의 심포지엄행사에서 장명수문화시민운동전주시협의회장의 개회사를 통해 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장실이며 외형적으로 포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화장실은 자칫 우리의 치부가 될 수 있다고 평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하여 화장실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개회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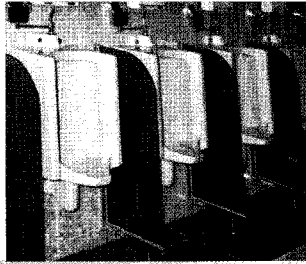
김완주 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나, 우리 한걸음 더」를 강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고가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한다고 말하며 화장실의 유지관리 주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가 바라는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심포지엄 소개

제1분과 발표는 임옥수 교수(전주대학교)가 특성 있는 지역 화장실 문화와 환경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다. 임옥수 교수는 발표에서 먼저 문화와 디자인의 차이점을 “문화란 민족의 어느 지역의 특성을 인간의 감각생리의 표현과정을 갖는 민족적 감수성의 근거물이며 디자인이란 민족적 감수성의 산물보다도 어느 특정민족, 특정지역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용을 위한 보편성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오늘날 과학기술·정보화에 의해 인간의 문화생활이 획일화되어가고 있으며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역간 문화정보가 하나가 되어지고 문화의 전통성 및 독창성이 결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문화는 각기 다른 문화와의 상대적 개념이 아닌 지역의 지리적·역사적·풍토적 특성 및 그에 상응하는 측면에 근거를 두어 지역문화에서 각각의 특성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된 특성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화장실 디자인의 계획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화장실문화 정립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화장실 디자인의



▲ 전주제련공원 여자 내부 화장실



▲ 전주제련공원 남자 내부 화장실(소변기)



▲ 전주 시내의 개방화장실 안내표시

▼ 전주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심포지엄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므로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설계가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제2분과에서 김기수건축사무소 대표는 공중화장실 신축 및 정비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였다. 김기수 대표는 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예전과는 달리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의 공중화장실 문화에 대해 생활 공간적 측면, 문화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 종합적인 측면, 친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한 화장실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건지산 체련공원, 덕진공원, 오목대화장실, 아중리17호공원화장실 등을 예로 들어 시공 시 주의할 점과 고려해야 할 점 등에 관해 설명하고 결론으로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이 자칫 돈이 많이 들면 좋은 화장실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고 화장실문화개선운동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공급자의 의식수준 변화가 주된 형태였고 앞으로는 사용자의 의식수준의 변화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꾸준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표하였다.

제3분과는 푸른온고을 21의 김택천사무국장이 화장실문화 바꾸기를 위한 관리방안과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로 이어나갔다. 김택천사무국장은 서언에서 화장실

문화 바꾸기의 주체를 4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시설관리주체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중심으로, 둘째 이용문화에서는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사용문화의 정착이 필요하고, 셋째 관리체계는 공급자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위치에 청소 및 유지관리, 보수 등에 신경을 써야하고 넷째로 외관의 디자인으로 색채의 조화와 지역만의 특색 있는 테마가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고 위요 사항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화장실 문화 바꾸기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시민의식개선(이용자 의식개선) 방안으로 화장실문화개선운동 단체와 함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유지관리 및 운동을 해나가고 화장실의 에티켓을 제정하고 홍보하여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는 화장실문화가 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시민이 추천하는 아름다운화장실을Best화장실로 선정하고 화장실에 관한 관련법의 제정으로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접근이 상시 용이한 화장실을 열린 화장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김택천 사무국장은 맺음말에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인식하여 생활철학을 바꾸고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의 삶도 공유할 수 있는 배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아름다운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이 정착되어진다고 발표하였다.



▲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야경

